

임실 태양광시설 주차장 준공

총 사업비 33억원 투입 191대 주차장 별도 건립

임실군이 태양광 발전시설까지 갖춘 전용주차장을 추가로 건립했다. 군은 28일 심 민 군수를 비롯하여 임실군의회 군의원과, 임실군이장협의회(회장 강준희)와 임실군 소속 간부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실군청사 주차장 준공식을 가졌다.

지난 2010년 이전한 임실군청사는 그동안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적지 않았다.

각종 교육과 민원문제로 청사를 방문할 때마다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도로변이나 청사와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할 수 밖에 없어서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주차문제에 따른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 사업비 33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3,900㎡, 지상 2층, 주차대수 191대의 주차장을 추가로 건립했다.

이로써 군청사 주차장은 기존 340대



임실군은 28일 심 민 군수를 비롯하여 임실군의회 군의원, 임실군이장협의회와 임실군 소속 간부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사 주차장 준공식을 가졌다.

에서 53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민원인 전용주차구역도 기존 30대에서 113대로 크게 늘었다.

또한 주차장 옥상에는 국가공모사업(산업부)을 통해 국비 2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총 사업비 5억원(국비 2억 5천만원 포함)을 투입하여 170kw의 태양광발전시설도 설치했다.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연간 2천500만원 상당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내다봤다.

특히 국가 에너지 절감 지원정책에 따라 에너지 절감에 따른 교부세로 매년 20억원 상당의 국가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임실=진홍영 기자

화합·소통 도모 겸소한 취임식

이환주 남원시장 초청장·화환 없이 민선7기 다짐

남원시가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민선 7기 제9대 이환주 시장 취임식을 화합과 소통을 다짐하는 자리로 만들기로 했다.

남원시는 취임식을 겸소하게 치르기로 하고 별도의 초청장을 발송하지 않았다. 화환과 화분도 일체 받지 않기로 했다. 대신, 취임식장 로비에 소망나무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민선 7기 4년 동안 이환주 시장과 남원시에 바람을 모으기로 했다.

취임식은 2일 오전 10시 10분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 기관·사회단체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갖는다.

취임행사는 식전공연, 취임선서, 취임사, 축하메시지, 축하공연 순으로 신명나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환주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립공공의료대학 조기 개교, 품격 있게 융성하는 문화관광, 좋은 기업과 일자리 역동하는 지역경제,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교육복지, 스마트 농업 풍요로운 농촌, 친절한 소통행정 편리한 도시환경을 민선7기 시정지표로 발표하고 더 당당하고 담대하게 남원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밝힐 계획이다.

한편, 남원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 취임식을 즐기고 시장에게 바라는 소망을 소망나무에 가득 담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지역 매아리

임실 버 병해충 공동방제 협의회

임실군에서는 28일 임실군청 농민교육장에서 읍면 농업인 대표 및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버 병해충 사후방제 협의회를 개최했다.

버 병해충 사후 공동방제 사업은 읍면 수요조사를 통해 일반약제 공급과 무인헬기를 이용한 종합방제를 통해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인력부족난을 해결하고, 병해충 방제효율을 높여 고품질 쌀 생산과 대외 경쟁력 높이고자 임실군에서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임실군 버 재배면적(3,937ha)에 대한 일반약제 약제와 항공방제 약제 등 대표약제 선정을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농약회사별로 추천된 약효가 검증된 약제를 비교 검토하여 방제에 효과적인 약제를 선정하고, 약제는 업체별 비교 견적 입찰을 통해 희망농가에 지원되고, 항공방제회사와 연계하여 대단위 항공방제를 7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는 기상불순 등으로 인한 도열병, 깨씨무늬병, 흑명나방 등 버농사의 주요 병해충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동방제를 조기에 시행함으로써 버 안정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일손부족 농촌에 구원투수로

내달 20일까지 전직원 700여명 고령농업인·재해 피해농가 일손지원

순창군이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전 직원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대대적 일손돕기에 나서 농촌인력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은 지난 26일 직원 20여명이 참여해 오디수확을 돕는 일정을 시작으로 7월 20일까지 군산하 전직원 700여명이 참여하는 2018년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참여 방법은 종합행정 담당별 실과와 읍면이 지원 날짜와 대상농가를 선정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지원대상은 독거노인과 장애인 농가, 고령농업인 등 이며 자연재해를 입어 일손이 급히 필요한 농가나 과수 특작 등 수작업 인력이 많이 필요한 농가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일손돕기 추진 농작업으로는 콩심기, 가지수확, 블루베리 분분자 수확, 병해충방제 등 농작업이다. 또 비닐 하우스철거 및 농경지주변 영농폐기물수거도 같이 실시해 클린순창 운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친환경농업과와 읍면사무소에



순창군이 농번기를 맞아 전 직원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대대적 일손돕기에 나선다.

일손돕기 창구를 운영해 실제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일손돕기 인력이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창구에 접수된 사항은 군청 일손돕기 외에 시민 종교단체, 군부대, 교육기관 등과 연계해 지역사회 전체

가 어려운 농민들을 돕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농작업시 농가의 부담이 없도록 작업도구, 중식 등은 자체 준비하고 농작업 시기도 농가의 요구에 최대한 맞춰 진행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7월 6일까지 연장

총 보험료의 85% 지원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3월 20일부터 판매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벼 상품의 판매기간이 오는 7월 6일까지 연장된다.

당초 6월 29일까지 가입이 가능하였지만, 시기를 놓쳐 가입을 하지 못하는 벼 재배농가들을 고려, 1주일간 연장하여 가입을 받는다.

남원시에서는 금년부터 보험료 지원율 5% 인상하여 총 보험료의 85%(국비 50%, 도비 15%, 시비 20%)를 지원하며 농업인은 15%의 자부담만으로 가입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남원시의 벼 1ha(3전경)당 평균 순 보험료

는 12만6,000원으로 이 가운데 농업인은 15%인 1만8,900원만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벼 재해보험은 가뭄,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 보장은 물론 조수해, 화재에 따른 손해도 보장하며, 흰잎마름병과 줄무늬잎 마름병, 벼멸구와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등 6종의 병해충 피해를 특약으로 보장해준다.

농정과장(이준무)은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인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며, "농협과 긴밀히 협조하여 시기를 놓쳐 가입 하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적극 홍보할 것"이라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 장마철 대비 관광시설물 일제 점검

순창군이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관광시설물 일제 점검에 나선다.

이번 관광시설물 점검은 장마철에 일어난 각종 재해를 사전 점검하고 조치에 나서 관광객에게 일어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기간은 29일부터 7월 5일까지이며 향가유원지 옥출산 산책로 3km, 전망대, 쉼터, 캠핑데크 등 캠핑장 전반과, 강천산 보도길, 추령장

승촌 테마공원 일원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관광객들이 주로 걷는 데크의 미끄럼 방지, 훼손 구간 발생점검 및 조치 등에 중점을 뒀 추진한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관광객 안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국립임실호국원

나라사랑 청소년 그림그리기 시상

국립임실호국원(원장 윤명석)은 28일 현충관 2층 로비에서 '제10회 나라사랑 청소년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총 415점이 접수된 이번 그림그리기 대회에서는 유치부,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중등등부로 나뉘어 총 62명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으며, 시상식은 우수자 3명을 초청하여 진행하였다.

전주예술고등학교(이하 예술고) 3학년 정유진양이 '별해는 밤'으로 대상인 국가보훈처장상을, 예술고 1학년 정경진양이 '평화와 조화를 찾아서'로 최우수상인 광주지방보훈청장상을, 예술고 1학년 이도현군이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으로 전북도민일보사 사장상을 받았다. 우수작 10여 점은 관내 주요 기관과 연계하여 7월중 외부 전시될 예정이다.

윤명석 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립임실호국원은 전북지역에 하나뿐인 국립묘지이며 6·25전쟁,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분들을 모신 곳으로, 이렇게 의미있는 장소에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뜻을 기억하는 훌륭한 그림을 그려 주어 고맙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